

## 구제역이 삼킨 연말연시 축제

전남 곳곳 크리스마스·해넘이·해맞이 행사 줄줄이 취소

구제역이 연말연시 축제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파동에 크리스마스 축제와 해맞이·해넘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타마울로 유명한 나주 이슬촌(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계림마을)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4회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당초 주민들은 마을 입구부터 성당까지 1km의 이팝나무 길을 오색 꼬마전구로 장식하고 성당 앞에는 은하수 터널을 만들어 22일 오후 점등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또 68가구 150여명의 주민들이 축제기간에 산타클로스가 돼 산타경운기 타기, 소망엽서 쓰기, 초창기수 캐럴송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축제가 알려지면서 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자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마을단위 크리스마스 축제로는 전국 최초로 이슬촌 축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지난해 축제기간에만 2만5000여명이 마을을 찾았다.

김성남(여·62) 마을운영위원장은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정성껏 준비

해 온 축제를 취소하게 돼 허탈하고 어쩔 수 없이 취소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해도 크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흑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열리는 전남지역 해맞이·해넘이 행사도 일부 취소가 확정되거나 자치단체별로 구제역 사태 추이를 관찰하면서 개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전남 16개 시·군 54개소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24일 현재 행사를 취소하기로 한 자치단체는 영암과 여수, 장흥 등 3곳이다.

영암군은 내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호남현대 야외광장에서 열 예정이던 전국 유일의 호수 해맞이 행사인 '2011 영암호 해맞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여수시도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15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 및 분산일출제'를 취소하기로 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 행사 취소 방침 통보와

함께 축제 홍보를 위해 게시했던 현수막을 수거하기로 했다.

장흥군도 역불산 해맞이 행사 등 관내 6곳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의 경우 전남 최대 한우사육 지역인 만큼 구제역 방역에 그 어느 지역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행사는 취소했지만 개별적으로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산타마울'로 유명한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계림마을(일명 이슬촌) 입구에 24일 구제역 전국 확산으로 크리스마스 축제가 취소됐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이번엔 여수 또 숨은 선행

쌀 500포 견네고 사라져

50대 남자가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시골 면사무소에 쌀 500포를 견네고 사라져 세밀을 흔흔하게 만들고 있다.

24일 여수시 삼산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정장차림의 50대 남자가 20kg들이 쌀 500포를 실은 트럭을 타고 면사무소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이 쌀을 내리놓고 떠났다.

이 남자는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청에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총총히 사라졌다.

면사무소 측은 이 쌀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혼자 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했다.

한 직원은 "삼산면 출신의 여수지역 기업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독지가는 삼산면 내 청년회에도 후원금을 보내는 등 숨은 나눔 활동으로 지역에서는 '얼굴없는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4일 광주시 동구 동명교회에서 2010년 성탄 전야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교회 영어아이가 무대에 서 울동을 맞추며 성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나명주 기자 Namj@kwangju.co.kr

## 구제역 방역 예비비 1541억 추가편성

전남·북도 10억씩 지원

정부는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매몰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54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 축산 농가나 관련 종사자들의 행사나 모임을 당분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가 예비비 편성안을 의결, 곧바로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질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

축, 축산업자는 소독 필증을 받아야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즐거움 크리스마스**  
12월 1일 한정 특별 혜택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객실 + 조식(2인) + 미니케이크 증정 ₩100,000
- 안심스테이크(2인) + 와인서비스 ₩55,000

연락처: 062-227-8500 |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커짐에 따라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과 전북, 충북, 충남, 경남에도 각 10억원의 방역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5일 광주와 전남·북지역은 구름이 많고 눈이 올 가능성(강수확률 60~80%)이 있다"며 "여수와 완도 등 도서지방과 고창, 부안 등에는 강풍주

## 맹추위 속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휴일은 25일과 26일, 광주와 전남·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고 이 끼 날씨 가운데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5일 광주와 전남·북지역은 구름이 많고 눈이 올 가능성(강수확률 60~80%)이 있다"며 "여수와 완도 등 도서지방과 고창, 부안 등에는 강풍주

의보가 발효됐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2도의 분포가 예상된다.

특히 25일 오전을 기해 무안과 함평, 영광, 신안(흑산면 제외) 지방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으며,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밤부터 점차 강해진 눈발은 내륙지방까지 확대돼

다음날까지 5~15cm 가량의 적설량을 보이겠다.

휴일인 26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온도로 전날보다는 날씨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를 기록하겠고 구름이 많고 눈이 오는 날씨가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27일께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차츰 풀리겠다"며 "건강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바가지 고려청자' 수사 ▶ 3면 2010 히트상품 보니 ▶ 4면 우울증 예방법 ▶ 5면 토끼띠 스타들 ▶ 7면 이메일 이용 급감 ▶ 13면 젊어진 축구대표팀 ▶ 14면

##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전세계 35개국 46개 주요 도시에서 62명의 해외 특파원들이 현지뉴스를 전달합니다

뉴미디어를 선도하는 연합뉴스

국내외에 방대한 취재망을 갖춘 연합뉴스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뉴스서비스,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영어·일어·중국어·아랍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6개국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뉴미디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